시 론

자녀를 위한 생성 AI 활용 지도 팁

박 남 기
광주교대 前 총장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숙제를 할 때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I가 학생들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아이들 손에 AI가 들려 있어서 사용을 막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부모가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 학교와 협력하여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다.

AI는 아주 뛰어난 가정교사와 같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생성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AI는 학습 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숙제 대행자가 될 수도 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가정교사에게 물어서 해결하는 것은 AI를 학습 도우미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학습 도우미로 활용할 때에도 뭐든 궁금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물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에게 바로 질문하여 답을 얻는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답을 먼저 보고 푸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풀 수는 있지만, 학생의 문제 해결력이나 뇌의 발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혼자 고민하며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뇌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발달하게 된다. 힘들게 공부해야 오래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은 AI 시대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AI에게 질문하여 답을 얻었을 경우에는 눈으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신이 던진 질문, AI가 제공한 답을 노트에 정리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AI가 준 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검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AI가 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늘 지도하고 관리하며 점검한다면, 그 학생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AI를 숙제 대행자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능한 가정교사를 묶어주었더니, 아이가 부모 몰래 가정교사에게 숙제를 하도록 시키고 있다면, 차라리 가정교사를 두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AI가 숙제를 대신 하게 하면, 학생은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기본 지식과 길러야 할 역량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게 된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성취도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숙제 미루기, 기억력 감퇴, 무기력감 등의 문제도 커진다고 한다. 이는 자칫 학습 흥미도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녀가 AI를 숙제 대행자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부모와 학교가 협력해야 한다. 선생님은 수업 중 AI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사용까지 막기는 어렵다.

AI 시대에는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 역량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한다. 부모의 지도하에 가정에서도 바르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AI를 통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반면,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가정의 학생들은 AI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학업성취도와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학교는 생성 AI를 활용할 수 없는 수업 중에 숙제나 보고서를 수행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AI 의존성을 줄이고, 중독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부모도 AI의 과도한 사용이 가져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AI의 올바른 사용법, AI에게 좋은 질문 던지는 법, 답변의 진위 확인하는 습관 등 AI 활용 역량을 익혀 자녀를 도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부모의 미래사회 대응력도 키워줄 것이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TV나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생성 AI 활용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AI를 접하고 있고, 그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용 중단시키거나, 바른 사용법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문화난장

G-전용공연장 건립·KT&G 상상마당 광주 유치를

김 영 순
前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광주에 G-전용공연장 설립과 KT&G 상상마당 유치를 제안한다. 뮤지컬, 오페라 하우스 등 대규모 전문예술극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막대한 건축비용과 운영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LED배경, 가변형 객석을 갖춘 200석 규모의 소규모 전용 공연장 건립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류문화콘텐츠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약의 방안인 국내외 K-pop 꿈나무를 위한 중·소형 공연장 조성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우선, 광주의 공연장 현황을 살펴보자. 광주예술의 전당 대·소극장, 빛고을시민문화관, 미로센터의 미로극장, 서구의 서빛마루, 남구문예회관, 북구문화센터, 광산문예회관, 빛고을국악전수관, 상무지구 광주공연마루 등이 있다. 광주예술의 전당 소극장은 460여석, 빛고을시민문화관은 715석 규모다. 광주예술의 전당 소극장과 빛고을시민문화관은 대관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특히 하반기에 공연예약률이 100%에 가깝게 이뤄져 공연 일정잡기가 매우 힘들다.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미로센터의 미로극장1관(신관)은 공연, 강연 등을 다목적 강당(82석)이라고 하지만 공연장으로 선호되지 않는다. 상무지구 광주공연마루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미흡하며 그나마 몇 년간 추진돼온 광주국악상설공연마저 중단된 상태다.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구름 아래 소극장'은 참고하기에 적합한 소규모 공연장이다. 지하 1층에 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췄고, 무대 3면의 LED 백월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대관 시 공연장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 음향 장비, 조명 장비 및 기본 오퍼레이팅이 제공된다. 가수 김장훈을 비롯해 수많은 가수들이 소극장 콘서트를 벌이며 핫플로 등극했다. 콘서트, 팬미팅, 쇼케이스, 제작발표회까지 다양한 장르의 대관이 모두 잘 어울리는 곳이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동에 위치한 CJ 아지트 광흥창을 보자. CJ문화재단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에 음악전용 공연장이자 창작스튜디오 등을 운영되고 있다. 공연장은 250석 규모의 블랙박스형 소극장이다. 가변형 무대와 LED 스크린, 스탠딩 객석 등 최신 공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연극, 뮤지컬, 밴드 공연, 토크쇼까지 가능한 '복합문화실험실'로 청년 예술가들의 성지로 자리잡았다. 뮤지션들이 앞다퉈 이곳에서 콘서트를 갖는 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은 부담없이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KT&G 상상마당의 라이브홀은 인디밴드와 다양한 아티스트의 산실이 되고 있다. 좌석공연시 189석, 스탠딩 공연시 최대 4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천장이 높아 공간감이 좋으며 콘서트 진행시 흥겨움을 배가시킨다. 지난 2020년 개관한 부산 KT&G 상상마당은 최대의 규모, 멋진 건물외형 등으로 광주 청년예술인 시각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KT&G 상상마당은 수도권(대치, 홍대) 강원권(춘천) 충청권(논산) 영남권(부산)에 건립돼 있다. 호남권 유치는 그동안 논의돼 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자체와 정치권의 KT&G 상상마당 광주 유치 건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광주의 예술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선 G-전용공연장 건립과 KT&G 상상마당 광주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지역에선 인디밴드 아티스트나 청년 뮤지션, 실험극단 등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의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도 광주 공연을 주저하는 이유다. 작은 규모의 공연장, LED배경, 가변형 객석 등의 시설을 갖췄으면서도 저렴한 대관료 등의 요건이 미흡해 쉽게 오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굳이 홍대를 찾지 않고도 재밌는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으며 예술관광의 활성화와 함께 노잼도시 광주를 탈출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독자투고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6월27일 오후 1시26분께 여수시 만흥동의 한 식품가공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과 이를 구조하려던 업체 대표가 잇따라 쓰러져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2020년 부산에서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 3명이 숨졌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에서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4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 ·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화재·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정리정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 독자투고를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社 說

공익성·사업성 접점 찾아야 할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광주신세계가 '더 그레이트 광주-광주종합버스터미널' 개발계획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계획 및 공공기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공공·민간·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시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핵심은 도심 복합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 상에는 호텔 객실을 오피스텔(업무시설)과 한 건물로 통합, 기존 250실에서 200실로 축소했다. 광주시와 이견을 드러냈던 주거복합시설은 516세대로 변동이 없다. 사업비는 4조4천63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공공기여는 983억원에서 828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광주시는 토지 감정평가 등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공익성과 사업성의 접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또 다른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경우 관할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면서 특단의 교통 대책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이 정상 추진돼도 2032년 준공 예정인 만큼 개점 시기인 2027년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북구는 프로야구 경기 시 복합쇼핑몰 주차장 활용,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상 사후 모니터링 등 자체 건의한 교통 개선책과 광주시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도보) 정책'을 병행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신세계의 터미널 복합개발은 서구 광천동 49-1번지 일원 약 10만㎡ 부지에 연면적 81만㎡ 규모로 이뤄진다. 건축물은 지하 7층, 지상 47층까지 들어선다. 더현대 광주는 북구 임동 옛 일신·전남방직공장 내 3만2천㎡(높이 59m·길이 214m·폭 111m)에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27만4천㎡ 규모로 조성된다.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의 1.5배다.

민선8기 1년을 남기고 역점 사업인 복합쇼핑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신속·공정·투명의 3대 원칙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도시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형 프로젝트다.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전체 시민에 이익이 되고, 광주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 광주시가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립 논란 광주 신가2중학교 가능한 대안 숙고해야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지역에 예정된 (가칭)신가2중학교 신설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광산구에 전달했다. 당초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재개발 지연에 따라 2030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신가동 정비 사업은 노후 주택지역 일대를 개발해 5천가구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합 측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서울 마곡, 인천 송도처럼 뒤늦게 과밀 학급 문제로 학교를 짓는 전례를 반복하지 말라는가 하면, 주민 대상 설명회도 거치지 않는 통보라며 무책임한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광산구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업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신가2중 복합시설 무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30년이 되면 설립 요인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신가동이 포함된 제7학교군 중학생 수는 올해 7천968명에서 2030년 5천820명, 2032년 4천539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수요를 인근 수완·운남·신가중에서 여유 교실로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주민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지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문화, 체육교류 등 상생 공간으로서 의미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학교 건설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부담되더라도 인구 통계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접근성에 힘써야 한다. 안전상의 문제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일방통행, 탁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 민원을 물리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정확한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신가2중 신설 취소를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복합시설과 맞물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논쟁 해소를 위해 성의를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디카시 광장

고수의 품격

권준영

밀 때가 있고
끌 때가 있다

진정한 고수는
그 때를 안다

※시작노트

대한민국의 지난 겨울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던가요.
그렇지만 올해도 꽃은 곱게 피었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와서 제 할 일을 한거지요.
우리의 고귀한 경전, 자연의 위대한 힘입니다.
공자의 말이 아니라도 사람이 저마다 때를 알고 맡은 일을 해나가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에 고수의 품격이 보입니다.
밀고 당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제 할 일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디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